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발언은 아주 함축적이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 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정상 회담 계획이 직전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 선거 결과 후임자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후임 후임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직접 전쟁을 한 국가 사이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취다.

만남 자체가 변화의 시작

인공기와 성조기가 각각 여섯 기발이 교대로 나부끼는 것을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은 생경했다.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트럼

북미회담, 새로운 역사의 시작

프는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문서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현장에서 그것을 찍은 사진을 확대해 곧바로 공동선언문 내용을 가장 먼저 세계에 타전했다고 한다.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이다. 공동성명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안전 담보, security guarantees)을 제공할 것을 확인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확고 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으로서는 명분과 체면을 살린 회답이었다. ‘북한의 비핵화’라 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 표현한 점도 그렇다.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 큼 불만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회담 상대방에게 항복을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의 입장은 연합뉴스(2018.6.13)가 인용한 ‘조선신보’의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굴종에 다른 일방이 보상을 주는 거래 방식은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싸우는 두 나라 사이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하루 전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공동성명 문서

에는 V와 I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신뢰 구축, 시간이 문제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심만큼이나 미국의 ‘체제 보장’이란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CVID의 V, I를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CVIG의 V, I를 정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회담 후 이어진 미국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이를 깨닫게 했다. 구체적 결여는 구체적 내용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구체적 조항이 자칫 향후 협상과 추진에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 공개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구축’이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은 정상 회담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관계 개선은 더욱 진전시키고 문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실질적인 신뢰 구축에서 나온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

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재와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불신할 것은 아니다. 우리 또한 적대 관계를 발미로 독재와 인권 탄압이 이뤄졌던 과거를 생각하면, 적대 관계의 청산만큼 인권 개선에 효과적인 게 또 무엇이 있겠는가.

상호 신뢰 구축은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한편, 시간의 제약이 있다.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합의의 이르지 못했다. 시간을 많이 되게 한다. 또한 구체적 조항이 자칫 향후 협상과 추진에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 공개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으로 머무러갈 시간이 없다.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실질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구가하는 한반도를 누가 만들 것인가.

교단에서



김진우 우산중 교감

교육부의 신뢰도가 낮다. 근현대 교육에서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적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낮아도 너무 낮다.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극단적이고 조롱 섞인 의견도 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이지만 유독 교육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갈수록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기 부딪치는 오늘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성과를 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개선안을 발표하기 전에 더 속려하고, 발표 후에는 고심한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지금처럼 신뢰가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론된 정책에 대해 찬반은 차치하고, 추진 과정을 보면 뒤집고(절대평가 후퇴, 대학에 정식 확대 요구), 미루고(수능 개편 유예,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유보), 넘기고(9개 대입 개편안 이송, 재이송)이다.

첫 단추는 수능 평가 방법이었다. 지금까지 여러 발표와 보도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교육부의

동그라미는 나중에

확고한 정책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10일 ‘네 과목 절대 평가’를 1안, ‘전 과목 절대 평가’를 2안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3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고,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낮아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8월 31일 1년 유예를 선언했다. 개편안 당사자인 중3 학생(현 고1)의 수능 반상이 중2로 넘어갔다. 이제는 ‘전과목 절대 평가 전환(1안)’과 ‘상대평가 유지(2안)’를 가지고 공론화를 거쳐 오는 8월 초 확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미뤄진 것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이다. 지난해 12월 말 유아 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3주 만에 뒤집었다. 영어 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등을 우려해서 시행 결정을 1년 유보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개선 방안’은 지난해 11월 확정해서 금년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정책 속려제로 미뤄졌다.

지난 5월 말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가 편특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3안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는 다시 교육부 결정에 위임하자 어느 신문 기사의 제목은 ‘대입 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돌

고 돌아 도로 교육부’였다.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교육부는 ‘선발 방법 비율(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비율)’, ‘수시 수능 최저 학력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선발 시기’,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개편’, ‘객관식 지필 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 고사 개선’, ‘수능-EBS 연계율’ 등 9개 대입 개편 이송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겼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 중 3개 안전(선발 방법 비율, 수시 수능 최저 학력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법)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 6개 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아 대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시·정시 통합은 ‘현행 유지’를 권고”하면서 공을 다시 교육부로 넘겼다. 애초 전문성을 가진 교육부가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몽땅 떠넘기 모양새가 되었다. 최선의 대입 개편안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망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중 어느 부서에서 들어야 하는가.

드 멜로 신부가 쓴 ‘일본 헛소리’란 책에 이런 글이 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알 아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을 확인해 주는 무엇인가를 찾아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논증한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마을을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보니 놀라운 사격 솜씨의 표지들이 있었다. 나무들과 헛간들과 담장들에 곳곳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마다 정확히 한가운데 총탄 구멍이 나 있었다. 임금님이 이 비범한 사수를 보자고 했다. 불러다 놓고 보니 열 살 어린이였다.

“못 믿을 노릇이로고. 어찌 그다지도 잘 하는고?”

“떡 먹기보다 쉽사리오. 먼저 쏘아 놓고 동그라미는 나중에 그리와요.”

이처럼 여러분은 결론부터 먼저 내려 놓고 그 틀레에다 전제들을 쌓아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고수해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까?”

윗 글에 빗대어 말하면 ‘대입 개편안 결정은 정말 쉬워요. 일단 복안을 발표하고, 반대가 심하면 바로 미루거나 여론 조사로 결정하면 되니까요.’ 이 명사 수 소년과 무엇이 다른가. 장렬하게 책 읽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기고



김은숙 신안 지도초교 행정실장

춤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자

때 세포들이 운동으로 인해 노화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땀을 통해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어 피부 속을 청소하게 되고 피부 미용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춤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비롯해 기관지의 기능이 강화되고, 폐소에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도 있다.

요즘은 무병장수(無病長壽)가 아니라 일병장수(一病長壽)라 한다. 서른아홉에 갑상선 수술을 하고 이듬해 시작한 것이 라인댄스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이 병은 평생 함께 가야할 친구가 되어버렸다. 지금은 평생교육원에서 11학기째 라인댄스를 한다. 초급반과 고급반을 왔다 갔다 했지만 수준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처음 배우는 동작도 이제는 곧잘 따라한다. 한 시간 반 동안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 보면 땀도 나고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도 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충분히 다는 생각이다.

라인댄스는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 추는 춤을 말하며, 특별한 파트너 없이 앞 줄과 옆줄의 라인을 만들어 추는 선무(線舞)이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술집에서 남자들이 줄을 맞춰 같은 동작의 춤을 추며 네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추던 춤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최근에 유행하는 라인댄스는 미국에서 카우보이댄스 또는 웨스턴댄스, 컨트리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건강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라인댄스에 사용되는 음악은 보통 빠르기 또는 걷는 속도의 것이어서 모든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라인댄스는 음악에 맞춰 동작하는 과정의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므로써 리듬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체형 교정 및 올바른 자세 만들기, 체력 향상, 골다공증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친밀감을 형성시켜 준다다고 대한라인댄스협회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몇 개의 기본 스텝으로 다양한 댄스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 동일한 음악에 동일한 동작을 즐길 수 있어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매 학기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라인댄스 반에 들어온다. 조금 라인댄스는 눈으로 보면 쉽다. 특별히 춤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과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라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던 동작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걸 보면 신기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나이가 너무 들어 춤을 시작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찍 시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라인댄스를 시작해보자.

社說

한전공대 무산되지 않게 모든 역량 모아야

한국전력이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전 공대 설립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대학 설립과 운영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에이티커니(A.T.Kearney)와 삼우건축을 선정했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대학 설립의 타당성과 기본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2022년 개교가 목표인 한전 공대의 입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이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어 추진 의지가 식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전이 지난해 4분기 1294억 원, 올 1분기 1276억 원에 이어 2분기에도 330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도 이런 우려에 무게를 더해 준다. 부채 역시 지난 1분기 연평균 111조여 원에 이르러 신규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게 됐다. 관측도 있다. 지역 내에서 입지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및 지역 정치권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지 논쟁에서 벗어나 한전 공대가 당초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에 촉구하는 한편 설립 방안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공대는 단순한 대학을 넘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관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다. 따라서 한전은 일시적인 수익 악화를 이유로 에너지 빨리 활성화의 중추가 될 한전 공대 설립을 미루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도 차질 빛나

금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현대차 광주 공장 설립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19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이 돌연 연기됐다.

물론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입주일 정도 순연됐다거나 다음 달 새로운 광주시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임 시장 취임 뒤로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그랬다면 그래도 다 행이겠지만 현대차의 광주 공장 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 체결이 연기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합작법인 내 노조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산성 등을 내세우며 업계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로서는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도 협상 중간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다. 노사민정이 기업 경영에 공동 참여하

는 첫 시도라는 부담감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차 노조의 반대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복지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반값 영봉 근로자의 워터 생선으로 기존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는 점과 근로자 임금 하향 평준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사업 투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현대차와의 협약 체결은 민선 7기로 넘어가게 됐다. 현대차는 노조와의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이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또한 현대차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현대차 공장의 광주 투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산림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하는 산림 국민 인식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 45.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조사에서는 66.1%, 2015년 조사에서도 62.3%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았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소나무를 선호하는 까닭은 뭘까? ‘소나무 박사’로 불리는 전문 연구자 김민태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명품 소나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나무로 비유하면 ‘소나무 문화’라고 한다. 농경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솔가지로 금줄을 치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생활한다. 죽어서는 소나무관에 들어가 소나무 숲에 묻힌다. 산업화 사회인 지금도 소나무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최근 소나무는 남북 간 대화 창구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10년6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급 군사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가 남측 수석대표에게 한 장의 소나무 사진을 보여 준 것이 분석된다. “...산림 사회에서는 이렇게 미미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심은 소나무였다. 2007년에 이어 올해 남북 정상들이 기념식수한 나무도 소나무였다. 피에 새겨진 ‘소나무 DNA’는 남한이나 북한이 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따 말까지 남북 간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 산림 협력 분과회의 등이 차례로 열린 예정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처럼 남북관계 역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소나무 DNA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website address.